

거꾸로 보기:

영국 맨체스터 대학, 휘트워스 미술관의 현대미술품 수집

메리 그리피스 | 영국 맨체스터 대학 휘트워스 미술관 큐레이터

나는 이 글에서, 영국 공공미술관들의 미술품 수집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하여 휘트워스 미술관(Whitworth Art Gallery)의 현대미술품 수집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휘트워스 미술관은 맨체스터 대학 부설 미술관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츠윌리엄 박물관(Fitzwilliam Museum), 옥스퍼드 대학의 애쉬몰리언 박물관(Ashmolean Museum), 글래스고 대학의 헌터리언 미술관(Hunterian Art Gallery)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 내 유수의 대학미술관으로 손꼽히며, 맨체스터 대학 캠퍼스 내에는 휘트워스 미술관 외에도 맨체스터 박물관(Manchester Museum)과 존 라일랜드 도서관(John Rylands Library), 조드렐뱅크(Jodrell Bank) 천파천문대, 터블리하우스(Tabley House)라는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시설들이 모여 있다.

영국의 공공 미술관·박물관은 우선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 대학(부설)이라는 세 종류로 대별된다. 국립 미술관·박물관은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런던 소재의 영국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테이트갤러리(Tate Gallery), 그리고 리버풀 및 세인트 아이브즈에 소재한 테이트갤러리 본원, 리버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있다. 공립 미술관·박물관은 시나 자치구(borough) 등 특정 행정지역에 설립되어 관할 지자체의 조세수입으로 운영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글래스고의 켈빈그로브 박물관 및 미술관(Kelvingrove Museum and Art Gallery)과 맨체스터 시립미술관(City Art Gallery) 등이 있다. 대학 미술관·박물관은 그 모기관인 대학과 영국 예술 인문학연구진흥원(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로부터 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된다. 이 세 종류 외에도 버밍햄의 이콘 갤러리(Ikon Gallery)와 같은 전시전문미술관과 맨체스터의 캐슬필드 갤러리(Castlefield Gallery)¹⁾ 등 예술가단체가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미술관은 예술진흥원(Arts Council)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한, 런던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상업용 갤러리가 영업 중이다.

휘트워스 미술관은 조셉 휘트워스(Joseph Whitworth)경의 유증으로 1889년 설립되었다. 조셉 휘트워스 경은 규격화된 나사 생산과 영국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는 강선총신의 제조 등 정밀공학 분야의 업적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사후 교육기관 설립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친구이자 유언집행자였던 알프레드 다비셔(Alfred Darbishire)는 미술관을 교육기관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에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건물신축 및 근린공원조성 공사는 1908년 완료되었으며, 휘트워스 미술관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지만 휘트워스 미술관의 소장품은 순수미술(Fine Arts)과 섬유(textile) 분야를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소장품 중 섬유는 섬유디자인 및 제조업이 맨체스터 시의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50년대까지 휘트워스 미술관은 여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었으나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는 대학의 몸집불리기 경쟁이 뜨거웠고, 맨체스터 대학도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이건 국제적이건 명문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종종 스스로를 학습 및 문화의 전당으로 부각시켜줄 수단으로 미술관 건립이나 인수를 모색해왔고, 맨체스터 대학도 그렇게 휘트워스 미술관을 인수했다. 인수 후 맨체스터 대학은 미술관의 현대화에 거액을 투자했고, 그 결과 영국 최고 수준의 드로잉 및 수채화 작품을 소장할 수 있었다.

맨체스터 대학은 수십 년간, 현재 미술사 및 시각문화연구학과(Art History and Visual Studies)로 불리는 미술사 전공 학과를 설치, 운영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 학과의 학과장은 휘트워스 미술관장직도 겸임해왔으나 미술관 내 큐레이터직 및 미술관장직의 전문화가 시급해진 1970년대 마침내 겸임제는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미술사

1) 캐슬필드 갤러리: 맨체스터 아티스트 스튜디오 연합에서 설립. 예술가들 및 새로 부상하는 예술 활동 지원·역주.

라는 학문분야와 미술관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휘트워스 미술관의 소장품 개관

휘트워스 미술관은 근·현대 미술품 약 1,500점과 그 이전의 드로잉 및 수채화 작품 4,500여 점, 판화 작품 11,000여 점, 섬유 작품 17,000여 점, 벽지디자인 작품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 중 벽지디자인은 랭커셔(Lancashire) 지방에서의 벽지 디자인 및 제조업의 성공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960년대부터 수집되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수집프로그램(programme of collecting)이란 필자가 담당한 휘트워스 미술관의 순수미술 소장품에 국한된 것으로 동 소장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면 터너(JMW Turner), 토마스 거틴(Thomas Girtin), 폴 샌드비(Paul Sandby), 데이비드 콕스(David Cox), 토마스 헨(Thomas Hearne) 등의 걸작이 다수 포함되어, 18~19세기 영국 풍경화 기법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사적인 소장품의 경우, 당시 영국의 풍경과 대영제국 휘하의 지역 및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풍경을 시각화하는 방식의 작품들이다. 위와 같은 위대한 화가의 작품들이 이 수집품 목록을 빛내주고, 거기에 때로 덜 알려진 화가들에 의한 수천 점의 작품이 목록을 보완하고 있다.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풍경화는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신화화 및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²⁾ 및 대영제국이라는 개념의 공고화에 일조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물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마저도 푸대접을 받았다. 휘트워스 미술관의 근·현대미술 소장품, 특히 최근 매입된 현대미술품은 이러한 신화화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한편, 비판하기도 한다. 풍경화의 소재는 시간 경과함에 따라 전통적인 풍경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대변하는 복잡다단한 도시공간의 표상들 및 도시의 이미지들로 바뀌어갔다. 휘트워스 미술관의 풍경화 소장품은 미술관 최고의 자랑거리로 수집 대상 작품의 선정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수집방법

국립미술관을 제외한 영국의 공공미술관은, 영국의 지자체 예산감액을 불러온 1980년대의 경기침체 이래 소장품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즉 아직도 소장품 수집은 엄두도 못 내는 미술관이 많고 그 이유가 구매자금 부족이란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휘트워스 미술관은 그간 영국 북서부지방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술관 관람객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터라 그나마 형편이 낫다. 그 중 일부 애호가들은 사후 후원금을 유증해주었기에 휘트워스 미술관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구매보조기금(Purchase Grant Fund)나, 헤리티지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기타 예술기금(Art Fund) 등이 요구하는, 매칭 펀드(matched funding) 신청을 위한 자체조달 자금을 적으나마 보유한 셈이다. 지난 수년간 신규 수집품이 거의 없었다곤 하나, 휘트워스 미술관은 수집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적은 없다. 물론, 미술관에 있어서 수집 중지란, 곧 미술사라는 역사 쓰기 의무와 함께 우리 자신의 시각문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휘트워스 미술관에서는, 미술가나 딜러, 경매를 통한 매입은 물론, 기증이나 유증을 통해서도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다. 영국의 여타 공공미술관과 마찬가지로, 휘트워스 미술관도 소장품의 본질과 소장품 확충 방법을 기술한 자체 수집방침에 따라 소장품 매입이 이루어진다. 필자는, 작년에 마리아 발쇼(Maria Balshaw) 미술관장 그리고 데이비드 모리스(David Morris) 수집팀장(Head of Collections)과 함께 근·현대 미술품에 대한 수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한 바 있다. 물론 수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집방침을 검토·수정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모범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특별히 작년에 단행된 수정방침은 수집의 주안점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다. 즉, 특정 미술가와 미술계의 특정 운동·학파에 주어져던 중점이,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세계 유수의 대학미술관을 지향하는 우리 미술관의 전략적 비전과 조화하여 학문적 연구로 승화될 수 있는 지로 이동한 것이다. 그 결과물인, 수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미술관은, 모기관인 맨체스터 대학(혹은 타 대학)의 전문연구분야가, 휘트워스 미술관의 역사적인 현대미술 소장품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뒷받침할 경우, 향후 10년간 그러한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근·현대 미술품을 매입할 것이다. 관람객과 학생, 학자 모두에게 독특하고 혁신적인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

2) 그레이트 브리튼 Great Britain: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을 포함한 통일 영국을 지칭함_역주.

미술의 실천면에서 핵심이 되어온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술품을 매입하는 구매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우리는 이것이 현대 시각예술 관련 창작의 실험실이자 대학미술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근본이 되리라 확신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우리는, 장소, 정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국작품 혹은 외국작품을 미술계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중심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매입을 추진할 것이다.

- 풍경과 도시,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작품.

-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

이와 같이 화이트워스 미술관은 수집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기관인 맨체스터 대학 내 학자들의 교육 및 연구에 좀 더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관계할 필요성, 둘째, 전시 및 감상을 위한 미술작품으로서 관람객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의 문화재라는 점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재산성 유지를 위한 소장품 활용방법 개선의 필요성, 셋째, 기존미술관의 자기 언급적(self-referential)인 한계를 넘어서 시각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시각역사/시각문화(visual history/visual culture)의 '쓰기'로서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급진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그 이유였다. 특히 마지막 이유가 화이트워스 미술관이 현재 수집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워스 미술관은 역사주의적 접근법을 토대로 발전해왔다. 역사주의적 접근법은 예술가를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간의 궤적 안에 두고 보는 보수주의이념과, 다른 한편으로 예술가를 시대, 학파, 취향, 규범에 따라 분류하는 진보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체계화된 이론이다. 이에 따라 역사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역사라는 빨랫줄에 미술작품이 세탁물마냥 걸리고, 걸린 세탁물 사이로 드러난 빈틈이란 예술가나 예술운동이 누락된 시기로, 적절한 작품이 시장에 나오거나 기증되어 세간에 알려지면 비로소 그 빈틈이 채워진다. 이러한 미술사관은, 대개 애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모태가 된 역사학계의 역사주의(historicism) 마냥,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역사가 직선적이라거나 어떤 사건이나 예술품이 원인으로 작용해 또 다른 사건이나 예술품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충고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구성적 원리(constructive principle)를 토대로 한다. 사고작

용(thought)에는 사고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단절도 포함된다. 긴장감이 가득한 환경 구성에서 갑자기 사고작용이 정지되면, 환경 구성에 충격이 주어지고 그 결과 사고작용은 하나의 개별적 인자로 굳어지게 된다.³⁾

이러한 '역사 거꾸로 읽기(brushing history against the grain)'⁴⁾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갤러리의 큐레이터들이 흔히 내보이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소장품 수집이라는 큐레이터의 또 다른 직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시회 기획 작업은 그 속성상 일회적일 수밖에 없지만, 소장품 수집은 유구하다고 볼 수 있는 역사를 '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미술작품이 아카이브에 수집될 때, 우리는 그 작품이 영원할 거라고 가정한다.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그 작품은 능동적 참여자가 된다. 화이트워스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인 우리들에게 벤야민이 제시한 선택권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별 생각없이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문화적 재산'이나 '문명의 기록'으로서 수집품 목록에 추가할 때 큐레이터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벤야민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잘 보여준다.

문명의 기록이라는 것들은 동시에
야만의 기록인 것이다.⁵⁾

큐레이터로서 수집 활동과 관련해 '역사 거꾸로 읽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폭발해버리기(blast open the continuum of history)' 위해, 극명한 상호관련성intertextuality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배치(constellation)를 통해 과거의 작품들을 '지금'의 미술작품과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⁶⁾

역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논의가 대학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과 같이, 시각적 역사를 '거꾸로' 읽는 행위가 대학미술관에서 시도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소장품에 대한 이러한 사고전환은, 지난 8년간 이루어진 소장품 수집 관련 부문의 몇 가지 성과에 영향을 받았다. 그 성과는 현대미술협회(Contemporary Art Society)의 특별수집계획(Special Collection Scheme)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1) 과거의 미술품과 현대의 미술품을 같이 전시하는 기획, (2) 학계의 학문적 연구 관심사들을 전시회 및

3) Benjamin, Walter,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Illuminations*(London, 1992), p.254.

4) Benjamin(1992), p.248.

5) Benjamin(1992), p.248.

6) Benjamin(1992), p.254.

소장품수집에 반영하는 기획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별 수집 계획 Special Collections Scheme

특별수집계획은 런던에 위치한 현대미술협회 Contemporary Art Society(CAS)가 만든 것으로, 이 협회는 영국 전역의 미술관과 개인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현대미술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CAS는 국립미술관들이 현대미술품을 구매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며, 많은 큐레이터들이 구매를 추진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점증하자, CAS는 1999년 특별수집계획을 수립했고 미술진흥복권기금(Arts Council Lottery)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영국 전역의 14개 미술관이 이 계획에 적으나마 자금을 보냈고, 그 대신 현대미술품 구매를 위해 매년 30,000를 5년 동안 지원받았다. 휘트워스 미술관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에 관하여 필자가 맡은 책무는 미술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CAS, 작가, 딜러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CAS의 계획 중 중요한 부분은, 참여하는 미술관들이 수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특정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휘트워스 미술관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풍경화 작품들이 바로,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풍경화 작품들을 조망하면서, 기존의 관점에 개념적인 변환을 가해 실내 풍경이라든지 건축 공간에 대한 작품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미술관이 소장한 풍경화들이 거의 20세기 이전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을 통해 과거의 미술품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 혹은 갓 제작된 작품들과의 대화를 선보일 수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과거의 작품들과 현대미술간의 관계는 이후 휘트워스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 계획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은 5년 동안, 36개 작품을 구매했으며, 그 중에는 제인 윌슨과 루이스 윌슨(Jane and Louise Wilson), 마이클 랜디(Michael Landy), 타시타 던(Tacita Dean), 레이첼 휘터리드(Rachel Whiteread) 및 좀 덜 유명한 작가들인 일라나 할페린(Ilana Halperin), 자크린 도나체이(Jacqueline Donachie), 이완 깁스(Ewan Gibbs) 등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⁷⁾

7) 작품 전체리스트는 첨부 1 참조.

전시회를 통한 현대미술 소장품의 활용

'현재의 미술품'과 과거의 미술품 간의 관계는 전시회를 통해 매우 잘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사상들(Concrete Thoughts)'은 스티븐 가트사이드 박사(Dr Steven Gartside)와 샘 개더로콜 박사(Dr Sam Gathercole)라는 두 명의 미술사학자들이 휘트워스에 제시한 전시 컨셉이었다. 두 사람은 맨체스터에 위치한 다른 대학인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었다. 이들은, 알리슨 스미드슨과 피터 스미드슨(Alison and Peter Smithson)이나 에르노 골드핑거(Erno Goldfinger)의 작업들 혹은 더럼(Durham) 카운티에 소재한 피터리(Peterlee) 주택단지 등을 통해 잘 드러나는 전후 영국 건축의 모더니즘과, 영국에서 활동한 현대미술작가들, 즉 제인과 루이스 윌슨, 토비 패터슨(Toby Paterson), 루트 블리스 룩셈부르크(Rut Blees Luxemburg) 등의 작품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관계성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시 제안을 통해 아직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작품들을 휘트워스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의 리슨(Lisson) 갤러리를 통해 제인과 루이스 윌슨의 비디오 작품인 'Monument (Apollo Pavilion, Peterlee)' (2003)를 구입했고, 글래스고의 모던 인스티튜트를 통해 토비 패터슨의 조각품 'New Plan' (2003)을 구입했다. 게스트 큐레이터들과의 논의와정을 통해 1960년대의 작품들, 즉 앤토니 힐(Anthony Hill), 매리 마틴(Mary Martin), 케네스 마틴(Kenneth Martin)의 작품들도 추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토비 패터슨과 맺은 관계 덕분에, 패터슨은 이 전시를 위해 특별히 새로운 벽화 작품을 제작해 주었다. '구체적인 사상들' 전시회는 2006년 가을 휘트워스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학계의 학문적 연구관심사를 소장품 수집에 반영

휘트워스 미술관이 맨체스터 대학의 일부가 된 이후, 교수들은 소장품을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1950년대부터 계속되었고, 이후 미술관학(Museology)으로 발전되어, 맨체스터 대학은 영국 최초로 미술관학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되었다. 최근 들어 미술관은, 소장품에 대한 미술사학과 교수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기대하며,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소장품을 선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소장품의 성향과 학과 학자들의 연구적 관심이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려한 접근법을 실현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안나 카르덴-코이네 박사(Dr Anna Carden-Coyne)가 주도한, 1947년 전쟁예술가 자문위원회(War Artists' Advisory Committee)가 휘트워스 미술관에 제공한 약 50점의 드로잉과 수채화 작품을 통한 제2차 세계대전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을 미술사 및 시각미술학과 강사인 콜린 트로드 박사(Dr Colin Trodd)가 활용한 사례도 있다. 후자의 결과로 2008년 11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 뉴 라이팅 센터(Centre for New Writing)의 존 맥얼리프(John McAuliffe)는 순수미술 소장품을 활용해 문학 창작과 학생들이 강조 묘사법을 연습하도록 했으며, 고고학과장인 줄리안 토마스 교수(Professor Julian Thomas)는 스톤헨지 발굴에 참여한 맨체스터 대학과 4개 다른 영국 대학의 고고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전시 기획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미술을 연결시킨다는 개념은 줄리안 토마스 교수와 동료인 헬렌 위크스테드 박사(Dr Helen Wickstead)에 의해 이미 수립된 것이었다. 이들은 2007년 여름 스톤헨지 발굴과정 동안 작가 연수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명의 작가들이 발굴 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을 휘트워스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토마스 교수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당시, 필자 역시 현대미술 소장품의 재전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스톤헨지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포함시키면 맨체스터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에 대해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작가들이 선사시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휘트워스가 소장하고 있는 스톤헨지의 역사적 모습들이 전시에 추가되어 현재의 미술품과 밀접한 연결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전시가 바로 '스톤헨지 그리기(Drawing Stonehenge)'다.

이 전시에서 소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학자들과 작가들과의 교류, 스톤헨지 연수에 참가한 작가들의 생각, 그리고 최초로 스톤헨지에 적용된 '신' 인류학에 영향을 받은 고고학 등에 영향을 받았다. 작가들과 고고학자들의 명량한 분위기에 힘입어 필자도 소장품에 고고학적 은유를 적용하고 미술관을 마치 발굴 현장처럼 대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작품은 '발견유물'로 간주되었고, 지나치기 쉬운 작은 사물, 주변적인 사물, 주변화된 사람들의 흔적을 담은 것으로서 선택되었다. 나는 이러한 작품들이, 사람들이 어

떻게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카를로 긴즈버그(Carlo Ginzburg)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사냥을 해왔다. 수많은 추적 경험으로 인류는 땅에 남겨진 흔적, 부러진 나뭇가지, 배설물, 털, 엉킨 깃털, 고여있는 냄새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먹잇감의 크기와 이동방향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극히 미세한 흔적들에 대해 냄새 맡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범주화하는 법을 배웠다. 숲 한가운데나 넓은 초원 등 숨겨진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매우 빠르게 복잡한 정신적인 사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다.⁸⁾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관객들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만의 흔적, 강조점, 시각적 리듬, 소통방식 등을 찾게 될 것이다. 현대미술 소장품 그리고 전통적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몇 가지 작은 사물(Some Smaller Things)'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여름 '스톤헨지 그리기' 전과 같이 개최되었다. '몇 가지 작은 사물' 전의 작품들은 큐레이터로서 내가 작품들 사이에서 인지한 시각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기존의 전시 방법인 걸기용 줄에서 탈피했는데, 왜냐하면 줄걸기 방식으로는 휘트워스 미술관이 순수미술 소장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작은 크기의 작품들이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각적 분리방법을 통해, 관객들은 액자에 끼워진 종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또 작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낸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체 33개 작품 중에서 3개가 새로이 수집된 작품이었는데, 이는 고던 청(Gordon Cheung)의 '브뤼겔의 고속도로(Brughe's Highway)' (2004), 험프리 오션(Humphrey Ocean)의 1997년도 드로잉인 '경고(Warning)'와 '매듭(Knots)' (벽지그림)이다. 고전 및 현대의 작품은 개념적, 형태적 연관성을 고려해 같이 전시되었고, '마이너(minor)'라는 특성 때문에 수십 년간 미술관에서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이 빛을 보게 되었다. 또한 전시된 작품들은 설명판 없이 전시되었으며, 그 대신에 작품들 사이에 간단한 인용문을 붙여서 내가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감지할 수 있는 힌트를 주었다.

8) Ginzburg, Carlo, *Myths, Emblems and Clues*, (London, 1990), p. 102.

린 허쉬먼 리슨(Lynn Hersman Leeson)의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Roberta Breitmore)

학계와의 연관이 휘트워스 미술관의 미술품 수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아멜리아 존스 교수(Professor Amelia Jones)(미술사 및 시각문화연구)와 미국 현대미술가인 린 허쉬먼 리슨의 작품, 그리고 휘트모어 큐레이터와 소장품 사이의 상호연계 작업을 들 수 있다. 존스 교수가 행위예술 부문에서 연구비를 수상하면서 허쉬먼 리슨의 작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주립대학의 헨리 미술관(Henry Art Gallery)은 휘트워스 미술관에 허쉬먼 리슨의 회고전을 제안했다. '자율적 대리인(Autonomous Agents)'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전시는 2007년 가을 휘트워스 미술관에서 개최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전시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작가와 맺은 관계로 인해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Roberta Breitmore)'를 휘트워스 미술관이 구매할 수 있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현재까지 린 허쉬먼 리슨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170개 아이템으로 구성된 이 거대한 작품은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신체, 화장, 옷, 행동, 법률 및 의료기록, 관계, 주거공간, 스펙타클 및 감시의 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자아의 개념을 탐구하는 퍼포먼스, 사진 및 비디오 작업으로 모두 20세기 후반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린 허쉬먼 리슨은 붉은색 드레스, 카디건, 코트를 입고 가죽 가방과 선글라스, 금발의 가발로 구성된 코스튬을 입고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를 만들어냈다. 작가는 화장으로 외모를 변형시켰고, 이 과정을 '구성 기록'에 담고 엘리노어 코폴라(Eleanor Copolla)가 자신을 로베르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촬영하도록 했다. 로베르타라는 가상의 인물은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아파트, 치과 기록, 정신과 상담의, 펜팔로 만난 친구들, 데이트 등을 통해 '현실'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친구들과 지인들은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레스(San Francisco Progress)지를 비롯한 신문과 잡지에 개재한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가 남자들과 만나는 데이트는 사진으로 기록되었고 사진작가는 린 허쉬먼 리슨의 지시에 따라 사립 탐정처럼 원거리, 중거리, 클로즈업 사진을 촬영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원래의 인물과 똑같이 차려 입은 세 명의 여성들로 늘어났다. 이 시리즈의 사진들은 갤러리 오픈링 장소에서 한 명의 로베르

타가 허쉬먼 리슨 가까이에서 서있는 오싹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사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는 페레라(Ferrara)의 팔라조 데 이 디아만티(Palazzo dei Diamanti)에 있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Lucrezia Borgia)의 지하실에서 열린 행사를 끝으로 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작가에 의해 '엑소시즘'이라 명명된 행사에서 로베르타의 역사는 분신증의 하나인 크리스틴 스타일즈(Kristine Stiles)에 의해 연기되었고,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의 이미지를 불태움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후 로베르타는 다른 가면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터랙티브 로봇 작품인 '사이버로베르타(CyberRoberta)'로, 또 가장 최근에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라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복잡한 작품을 휘트모어가 수집하게 되자,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냈다. 사진작품을 전시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고는 해도, 미술관은 이러한 매체의 작품을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현대미술 소장품들은 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외 유명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작품 몇 점이 있었다. 또한, 여성 작가의 작품이 몇 점 있었지만, 주된 담론은 남성적이라고 보기에 충분했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휘트모어의 기존 소장품과 같이 숭배 받는 작품을 소장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따른다는 의미였다. 그와 같은 함축된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 작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휘트모어의 작품 수집정책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는 사례이다.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가 해외 작품 구입이라는 기존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이 그저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 즉,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도시라는 배경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파편화되고, 투쟁하는가에 대한 극단적 표현 -의 측면이 바로 미술관이 수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수집정책의 철저한 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이는 대학과 대학교직원을 통해 세상의 관념들과 소통하겠다는 휘트워스 미술관의 신념을 드러내고, 그것이 미술관의 중심인 소장품 수집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미술 소장품 중에서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가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상화와 신체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과 젠더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의 풍경과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장소성이다.

정체성과 젠더

휘트워스의 소장품 중 여성을 표현한 작품 대부분은 남성 작가들의 작품으로 예를 들어, 포드 매덕스 브라운(Ford Madox Brown)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1867), 카밀 피사로(Camille Pissaro)의 '젊은 하녀(The Young Maid)'(1896), 월터 시스커트(Walter Sickert)의 캄든 타운시기의 그림, 피카소의 'Femme vue de dos'(1922), 아일랜드 서해안의 농촌 여성을 그린 어거스터스 존(Augustus John)의 드로잉, 존 밴팅(John Banting), 프랭크 아우어바흐(Frank Auerbach), 로저 힐튼(Roger Hilton)의 드로잉 등이 있다. 나와 타자라는 개념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루시앙 프로이드의 초상(Portrait of Lucian Freud)'(1951)과 프로이드의 '사람의 머리(Man's Head)(자화상Self Portrait I)'(1963)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들을 비롯한 사례로 들 수 있는 다른 많은 작품들은 모두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로 인해 문제시 된다. 수의 측면에서도, 전체 소장품 중에서 남성 작가가 여성을 그린 작품에 부여되는 중요도가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허쉬먼 리슨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 예를 들어 '로베르타의 신체언어 도표(Roberta's Body Language Chart)'(1978) - 드러낸 표현방법은 지금까지의 소장품을 주도하던 담론들을 뒤엎을 것이다. 더욱이 20세기와 21세기의 미술사는 여성 작가를 당연시해왔다. 이 뛰어난 작품은 균형 회복 과정에서 확보 해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다. 아멜리아 존스 교수는 미술관의 기금 신청을 지지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휘트워스 미술관이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를 소장하게 되면 페미니스트 예술, 개념예술, 행위예술 역사에서 핵심적인 일련의 작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와 같은 중요한 흐름의 측면을 다루는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시 기획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진행하는 '신체와 표현', '정체성과 시각'이라는 전문가 세미나, 보다 일반적인 현대미술과 행위예술에 대한 입문 과정 수업에서 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아가서 소장품을 보고,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소성과 정체성

앞서 언급했듯이, 휘트워스의 국제적인 명성은 18, 19

세기 영국의 수채 풍경화 소장품에 기인하는데, 이들 중 여러 작품이 국내외 전시를 위해 대여되기도 한다. 현대미술 소장품도 여기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지만, 로베르타 브라이트모어의 소장은 전체 흐름을 크게 변화시켰다. 로베르타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으며, 도시의 형태와 인물이 도시와 맺은 관계가 인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 로베르타는 이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거주'한다. 이러한 장소성의 개념이 휘트워스 소장품 전체에 반영될 것이고 장소성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발전될 것이다.

이 작품의 소장을 위한 타당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작품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린 허쉬먼 리슨의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전체 작품을 확인했고, 모든 항목에 대해 상황을 보고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전체 소장품의 성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있는 후에, 추가로 외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미술관이 이 작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뮤지엄, 도서관, 문서고 위원회(MLA)/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의 구매 보조기금과 휘트워스의 후원자들(Friends of the Whitworth)이 구매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뉴욕의 비트폼스(bitforms) 갤러리로부터 이 작품을 구매하여 휘트워스 미술관으로 옮겼으며, 현재 도록 작성 및 큐레이터와 학자들의 활용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12월 아멜리아 존스 교수와 학생들은 컬렉션에 기초한 세미나 과정에서 이 작품을 활용할 것이며, 런던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에서 휘트워스 미술관이 갓 구입한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의 단색판화(monoprint) 다섯 점과 함께 2009년 초 전시될 예정이다.

최근에 수집한 또 다른 작품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윌리 도허티(Willie Doherty)의 비디오아트 작품이다. 이 '방문자(The Visitor)' 작품은 2008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는 아직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다. 도허티는 과거 북아일랜드 6개 주에서 겪었던 '문제(The Troubles)'가 사람들과 공간 곳곳에 남아있는 방식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란, 아일랜드 급진 공화당 파와 보수파 준군사조직, 그리고 영국군 간에 196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현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된 총기 발사와 폭파, 살인과 처형이 이제 드디어 줄어들고 있으며 군사 무기와 악명 높은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온 흔적이 그 곳의 사람들과 장소에 남아있으며 도허티는 그러한 흔적을 자신의 작품에

담았다.

'방문자'는 알 수 없는 이방인에 쫓기거나 때로는 쫓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방인의 흐릿한 이미지를 숲 속에서 발견하고, 또 오래된 사진에서 이방인을 찾는다. 나레이터는 그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한 발의 총알에 맞은 젊은 청년임을 깨닫는다. 나레이터는 그 방문자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우울한 건물 속으로 추적해 들어간다. 숲과 도시건물이 시적으로 연결되고, 나레이터는 "마치 도시 밑에 숲이 존재하며 거리는 숲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친다.

이 작품은 단편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무엇을 암시하는 듯한 어두운 이방인, 숲 속에 감춰져 있는 듯한 위협, 광활한 자연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신체와 정신을 소비한다는 놀라운 사실 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문학의 이미지와 비유를 상기시킨다.

이 작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주의 깊게 고찰했다. 우선 도허티가 지속적으로 기억의 무게, 장소, 문화의 상실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특히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방법이다. 작가의 장소에 대한 고려는 휘트워스 미술관이 이미 발표한 대로 풍경, 도시와의 관계, 개인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문제화 하는 작품을 수집하겠다는 정책과 일치했다. 결국 작품 구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년 7월 런던의 매트(Matt's) 갤러리를 통해 구매했다.

소장품으로 이러한 작품을 보유하는 것은, 풍경화류의 기존 소장품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활기를 준다. 2000년까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은 영국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수백 년간 아일랜드의 독립과 관련해 지속되어온 긴장, 논의, 폭력은 무시하는 처사였다. 현재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출신지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 내에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방문자'는 불편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기존의 전통적 소장품들의 식민지 풍경에 대한 무관심을 비난한다. WJT 미첼(WJT Mitchell)은 풍경화란 "제국주의의 신성화된 무언의 언어"⁹⁾라고 정의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국외 영역으로 확장과 더불어 제국 내부에 대해 "자국의 경치를 제국의 중심으로서의 '본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¹⁰⁾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영국의 언덕과 나무, 강, 해안을 그린 드로잉과 수채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국주의적 공간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휘트워스 미술관은 현재 남쪽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러스홀름(Rusholme), 모스 사이드(Moss Side), 팰로우필드(Fallowfield), 출턴-온-매드록(Chorlton-on-Medlock)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공원 내에 있는 휘트워스 미술관은 대학과 세계 학계,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이미지와 개념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술관은 이미 1960년대에 개조 및 재구성을 통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외벽을 뚫어 커다란 창문을 만들어 외부와 공간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현존하는 내외부간 투명한 경계를 새로이 확장된 건물과 연결시키고, 러스트홀름 쪽의 공원 쪽으로 입구를 만들어, 미술관이 모든 이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주변 풍경으로의 확장은 은유의 차원으로도 발전하여, 새로운 건물에는 순수 미술 소장품의 전시장이 될 것이며, 또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풍경화를 연구할 국제 풍경화 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Landscape)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9) Mitchell, W. J. T., Landscape and Power (Chicago, 2002), p.13.

10) Mitchell (2002), p.17.